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19 No.6 Serial No.83 _ 2010. 12

한국 대학 실내디자인 관련 교육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

An Analysis and Directional Study on Current Interior Design Related Education in Korea

Author 서수경 Suh, Swoo Kyung / 이사,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부교수

Abstract

Interior design education has been developed rapidly since the discipline established in Korea in 1980s but unfortunately the development was without any progressive transition until 1990's. When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KIID inaugurated in 1992, interior design education and related research activities began to be intensified. Despite its effort, there were still confusion about the discipline as there were many similar discipline tracks (architecture, design, fine art, & home economic, etc.) each having an own definition of interior design and introducing different aspects of educating the subject. Education program for interior design still not sufficiently supporting the needs of today's rapidly changing industry nor to prepare the diverse needs of the client. In order for interior design major to be effective in the future and fulfill the needs of current industry development within our society, re-evaluation of our current interior design educational programs in Korea is important. This study will be the beginning of a research series. As the first part of the research series, this particular study has been focused on reviewing of current status of interior design majors in the nation and its current condition. While making suggestion for the changes in curriculum, the following points will have to be considered as basic principle. First, understanding the duality of technology and design to accommodate the contents of design discipline. Second, understanding the need of practice and theory combined for practical education. And lastly, considering ways to adopt the human experience in order to develop creativity in oneself.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only on the interior design discipline, and research method as the following; first, analyze current status by reviewing admission data for 2010. Second, process a survey regarding the interior design education and practice-related issues in admissions and collect opinions from educators and professional designers in the field. Thirdly, with reference to previous studies, suggestions will be made for the discipline to be effective in the field.

As mentioned earlier, this study series will continue and develop to suggest improvement in interior design program as well as to provide curriculums for students get ready for the industry with more up-to-date knowledges and creativities.

Keywords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실내디자인교육
Interior Design, Space Design, Interior Design Education

1. 서론

오늘날 디자인분야는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건설과 생산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계승하여 왔으나, 21세기 뉴밀레니엄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적 네트워크 가치의 추구라는 새로운 명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다자인분야는 환경 및 문화 분야와 더불어 21세기 화두로서 '인간 삶의 질(質)향상' 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학제적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1980년도 이후 활발히 발전해 온 한국의 실내디자인 관련 학문은 이제 공간디자인(Space design)[1]으로 확대 되어 소통과 혁신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 기능과 미를 겸비해야 하는 영역으로서 발전되고 있다. 공간디자인의 역할은 이제 단순히 외부의 환경조건이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기능을 넘어, 새로운 환경문화를 조성해 주는 의무와 책임을 갖는

* 본 연구는 2009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됨.

1) 공간을 디자인하는 전문영역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의 공간디자인은 실내건축, 실내디자인, 인테리어 등 실내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국한시켜 진행함.

전문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간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실내디자인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때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공간디자인 영역은 사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과학적인 근거와 미학적인 측면을 모두 감안하여 편리하고 쾌적하며 개성 있고 창의적으로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디자이너의 활용도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활동분야 뿐 아니라 타 영역들과의 통섭(通涉:consilience)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 해결을 위해 기존의 실내디자인분야는 다양한 시공간적 활동층위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영역이 더욱 세분화·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1988년도 이후 급격히 전문화된 실내디자인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져 다양한 학제와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았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실내디자인교육은 다소 짧은 역사에 비해 급격히 변화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내용이나 교육환경(외곽시설)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실내디자인 관련 학과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확대된 의미의 학문으로서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1. 연구 목적 및 의의

한국 대학교육중 실내디자인교육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신설되어 어떤 진보적 전환 없이 성장해 왔다. 1992년 사단법인 한국실내디자인학회가 설립되면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실내디자인교육과 연구 활동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건축·디자인·미술·생활과학 등 여러 계열별로 각기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급변하는 과학·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구조변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변화 등에 대처하는 실내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현재 한국 대학들의 실내디자인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교육환경 등을 조사하고, 전공영역에 관련한 전문가 설문을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근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으며,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사회 현장은 물론, 국제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보다 확대된 의미로서의 공간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편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한국 2-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내디자인 관련 대학/학과/전공별 소속과 모집정원수 등에 대한 현황분석과 문제점을 분석·종합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한 전공의 확대 개선 방향모색을 제시한다.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실내디자인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방향제시를 위해 진행된 연구방법은 첫째,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자료와 국내 2010학년도 대학입시 수험자료 등을 통하여 현황을 수집·분석 한 후, 둘째,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하여 각 대학의 현황을 확인하고, 셋째, 실내디자인 스튜디오 담당 교수들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문제점들을 취합하였고, 또한 실내디자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각 장별로 제안하고 결론에서 종합함으로써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내디자인 교육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2.1. 실내디자인 교육의 현황분석

(1) 실내디자인 교육의 현황분석

국내 실내디자인교육은 1988년 4년제 대학에 처음 개설된 이래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 하여왔다. 이러한 현상은 실내디자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어지나 반면에, 교육내용은 양적 팽창만큼 발전 되지못하고 있다.[2)]

2010학년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교(67개교 69개 학과)와 2·3년제 대학(66개교 69개학과)을 모두 합쳐 133개교에 실내디자인 관련학과/전공이 138개 설치되어 있으며, 모집인원은 학부 또는 계열모집(2,513명)을 제외하고도 4,995명으로 집계되어 수요에 비해 과다한 모집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상세한 현황분석은 <표 1, 2, 3, 4, 5, 6>와 같다.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실내디자인 관련전공은 서울과 경남지역이 각각 12개 대학교에 설립되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4년제 교육과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전국 2·3년제 대학 중 경기지역이 22개교 24개학과로 가장 많이 설립된 것은 수도권 억제정책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2) 한영호 외, 실내디자인 교육의 특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6호, p.3

<표 1> 2010학년도 4년제 대학교 실내디자인 관련 학과 수와 모집정원 지역별 분포현황분석

지역별	대학수	모집정원수		비고
		전공별	계열별	
서울	12(13)	266	481	상명대학교(2)
인천・경기	9	175	82	
강원	2	12	0	
충북	5(7)	83	90	충북대학교(2)
대전・충남	8	164	127	
대구・경북	9	129	40	
부산・울산・경남	12	160	272	
전북	5	31	50	
광주・전남	5	48	10	
제주	0	0	0	
합계	67(69학과)	1,068	1,152	

<표 2> 2010학년도 2·3년제 대학 실내디자인 관련 학과 수와 모집정원 지역별 분포현황 분석

지역별	대학수	모집정원수		비고
		전공별	계열별	
서울	4	312	0	
인천・경기	23(25)	2,075	90	경민대(2)·용인송암대(2)
강원	0	0	0	
충북	4	82	230	
대전・충남	5	205	120	
대구・경북	11(12)	580	215	대경대(2)
부산・울산・경남	8	348	280	
전북	1	0	65	
광주・전남	8	245	361	
제주	2	80	0	
합계	66(69학과)	3,927	1,361	

<표 3> 전국 대학 실내디자인 관련 대학 수/모집인원 집계/ 2010학년도 현재

대학별 구분	대학수(개교/학과)	2010학년도 모집인원(명)		비고
		전공별	학부/계열별	
4년제 대학교	67개교/69개과	1,068	1,152	상명·충북대학교(2개)
2·3년제 대학	66개교/69개과	3,927	1,361	경민·대경·용인송암대학
합계	133개교/138개과	4,995	2,513	

설립대학 수는 4년제와 2·3년제 대학이 비슷하나 모집인원수는 2·3년제 대학이 4배 정도 우세하다.

2003년도 4년제 47개교, 2·3년제 68개교[3]에 비하면, 2010년도에 조사된 4년제는 67개교로 20개교가 증가되었으나 2·3년제는 66교로 축소된 것이 특이점으로 나타난다.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합병 등 전공 체제변환 등 계속해서 학과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도 자료는 박혜숙 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5호 2002:12, p.14, <표 4>에 준한 것임)

3) 신경주, 한국 실내디자인 분야의 교육현황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003, p.3

<표 4> 4년제 대학교 실내디자인 관련 대학/학부/학과/전공/2010 정시 모집인원 현황[4]

대학교	소속대학	소속학부	소속학과	전공	2010 정시 모집인원(명)	
					학과별	학부/계열별
가톨릭	자연생활대	생활과학		소비자 주거학		82
강원	디자인대		실내가구디자인		2	
건국	디자인조형대		실내디자인		32	
건양	기계건설대		인테리어		18	
경남	자연과학대	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15
경성	멀티미디어대		인테리어디자인		19	
경운		건축 인테리어		실내건축		40
경원	공과대학		실내건축		19	
경희	생활과학대		주거환경		13	
계명	건축대		실내환경디자인		13	
고신	예술대	디자인		실내건축	2	
관동	예술디자인대		인테리어디자인		10	
광주	문화예술대		인테리어디자인		6	
광주여자	예능대		인테리어		6	
국민	조형대		실내디자인		36	
군산	자연과학대		주거및실내계획		6	
극동	예체능대	디자인		실내디자인		80
대구가톨릭	자연대		생활주거		12	
대구	조형예술대		실내건축디자인		25	
대구예술		예술	실내디자인		6	
대구한의	웰빙복지대		실내건축		9	
대불	예체능대		디자인	제품환경디자인		10
대진		디자인		제품환경디자인	25	
덕성여자	예술대	예술		실내디자인		33
동덕여자	디자인대	디자인		실내디자인		110
동명	건축대		실내건축		19	
동서	예체능대학	디자인		환경디자인		155
동양	생활과학대		건축실내		10	
명지	건축대학		공간디자인		10	
배재	공과대	건축		실내건축		23
백석	예체능대	기독교문화예술학		인테리어디자인		104
부산	생활환경대		주거환경		8	
상명	디자인대	디자인		실내디자인	36	
상명	자연과학대		소비자주거		14	
서원	조형환경대		건축	실내건축		10
세명	예체능대		실내디자인		17	
숙명여자	미술대학	디자인		환경디자인		96
숭실	공과대	건축		실내건축		49
신라	IT디자인대		실내디자인		11	
안동	생활과학대		생활환경복지		19	
연세	생활과학대		주거환경		6	
영남	생활과학대		가족주거		35	
영산	CT대		실내환경디자인		30	
용인	문화예술대		산업디자인	실내디자인	8	
우석	과학기술대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10	
울산	생활과학대	생활과학		주거환경		102
원광	미술대학	디자인		공간환경, 산업디자인		20
이화여자	예술대	디자인		공간디자인		110
인제	디자인대	디자인		실내디자인	12	
인천가톨릭	조형예술대		환경디자인		55	

4) 2010 대학입시 수험자료집, 종로학원

전남	생활과학대		생활환경복지		16	
전북	생활과학대		주거환경		15	
조선	미술대학	디자인		제품실내디자인	20	
중부	예술체육대학		인테리어		11	
중앙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		5	
진주산업			인테리어재료공학		55	
청운	방송예술대학		인테리어디자인		50	
충북	생활과학대/인문계		소비자		16	
충북	생활과학대/자연계		주거환경		18	
한국국제	공과대학		실내건축		4	
한서	예술대학		실내디자인		19	
한성	예술대학	미디어디자인컨텐츠		인테리어디자인	22	
한세	예능대학	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38	
한양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자연)		실내환경디자인		23
한양사이버			공간디자인		175	
협성	예술대학		실내디자인		15	
호서	예체능대학		실내디자인		30	
호원		건축		실내건축디자인		30
홍익	건축대학	건축		실내건축		60
67개대학				합계(명)	1,068	1,152

<표 5> 2·3년제 대학 실내디자인 관련 학부/학과/전공/2010학년도 모집인원

대학별	학부/계열별	학과별	전공별	2010 모집(명)	
				전공별	계열별
경남도립거창		건축인테리어		32	
경남정보		인테리어디자인		80	
경동정보		인테리어건축		50	
경민	건축		실내건축	160	
경민	디자인	가구인테리어디자인		80	
경북전문		건축인테리어		40	
계명문화	공업계열	건축인테리어		80	
계원 디자인예술		실내건축디자인		64	
구미1		인테리어디자인		40	
국립한국재활복지		인테리어디자인		23	
국제	건축디자인계열		실내건축		90
극동정보		실내디자인		42	
김천과학		건축인테리어		40	
김포		실내디자인		80	
대경		VMD	디스플레이·코디네이션	50	
대경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리모델링		50	
대구과학		건축인테리어		60	
대구보건		인테리어디자인		80	
대덕		인테리어·모델링		65	
대림		인테리어디자인		115	
대원	건축인테리어계열		인테리어		90
동서울		실내디자인		80	
동양미래		실내디자인		80	
동원		실내건축		60	
동의과학		실내건축		86	
동주		실내디자인		40	
두원공과		건축디자인		120	
목포과학		건축·인테리어디자인		60	
백석문화	디자인		실내디자인		120
부산경상		광고·인테리어디자인		60	
부산정보		인테리어디자인		50	
부천		실내건축		124	
서강정보	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90
서울예술		실내디자인		50	
서일		실내디자인		80	
서정		실내건축디자인		80	
성화	건축토목계열		건축인테리어		96
수원과학		실내건축디자인		164	
순천제일		건축인테리어		40	
순천청암		인테리어디자인		35	
신구		실내건축		80	
신성		인테리어모델링		60	
신흥		실내디자인		80	
안동과학		건축인테리어		40	
안산공과		실내디자인		96	
안양과학	공간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80	
여주		인테리어디자인		100	
영남이공	산업디자인계열		실내디자인	50	
영진전문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계열		실내건축		215
용인송암	건축인테리어디자인		실내건축	80	
용인송암	건축인테리어디자인		조명인테리어	80	
울산과학	공간디자인		실내건축		220
유한		실내디자인		80	
인덕		실내건축디자인		72	
인하공업전문		실내건축		96	
재능		실내건축		80	
전남도립		건축·인테리어		40	
전북과학	건축토목조경계열		건축인테리어디자인		65
제주관광		인테리어건축		40	
제주산업정보		인테리어디자인		40	
조선이공		실내건축디자인		70	
주성		인테리어모델링		40	
창원전문	건축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60
청양		인테리어패션디자인		35	
충청	건축인테리어		실내건축		140
한국재활복지		인테리어디자인		23	
한양여자		인테리어디자인		80	
한영	공학계열		건축인테리어		175
혜천		실내건축디자인		45	
총66개 대학	총69개 학부·학과		합계(명)	3,927	1,361

2003년도 68개 대학이던 것에 비해 2010년도 67개 대학으로 축소된 것은 직접 전화 및 문헌조사를 통해 폐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국내 4년제 대학교 실내디자인 관련 소속대학/학부/학과/전공분류/ 2010년 모집기준

소속대학별	소속학부/학과별	전공별	학과수	대학교명칭
디자인대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	3	동덕여대, 상명대, 인제대
	실내가구디자인학과		1	강원대
디자인조형대	실내디자인학과		1	건국대
멀티미디어대	인테리어디자인학과		1	경성대
조형대	실내디자인학과		1	국민대
조형예술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1	대구대
	환경디자인학과		1	인천가톨릭대
조형환경대	건축학과	실내건축학	1	서원대

미술대	디자인학부	환경디자인(공간환경, 건축)	1	숙명여대
	디자인학부	공간환경, 산업디자인	1	원광대
	디자인학부	제품, 실내디자인	1	조선대
	디자인학부	제품환경디자인	1	대진대
건축대	실내건축학과		1	동명대
	실내환경디자인학과		1	계명대
	공간디자인학과		1	명지대
	건축학부	실내건축	1	홍익대
공과대	실내건축학과		2	경원대, 한국국제대
	건축학부	실내건축	2	배재대, 숭실대
기계건설대	인테리어학과		1	건양대
생활과학대(환경)	주거환경학과		7	경희대, 연세대, 울산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부산대
	건축실내학과		1	동양대
	생활환경복지학과		2	안동대, 전남대
	가족주거학과		1	영남대
	소비자학과/인문계		1	충북대
	생활과학부/자연계	실내환경디자인	1	한양대
자연과학(생활)대	소비자주거학/주거 및 실내계획학과/생활주거학		4	상명대, 가톨릭대, 군산대, 대구가톨릭대
	디자인학부	인테리어디자인	1	경남대
과학기술대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1	우석대
웰빙복지대	실내건축학과		1	대구한의대
예술(디자인)대	디자인(예술)학부	(공간)실내(건축)디자인	3	고신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인테리어디자인학과		1	관동대,
	실내디자인학과		2	한서대, 협성대
	미디어 디자인컨텐츠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	1	한성대
예능, 예체능대	실내인테리어(디자인)학과		3	광주여대, 중부대, 호서대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공간환경)디자인학	5	극동대, 대불대, 동서대, 세명대, 한세대
문화예술대	기독교문화예술학부	인테리어디자인	1	백석대, 광주대
	산업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	1	용인대
방송예술대		인테리어 디자인	1	청운대
IT디자인대	실내디자인학과		1	신라대
CT대	실내환경디자인학과		1	영산대
사이버대	공간디자인학과		1	한양사이버대
기타(없음)	예술학부	실내디자인학	1	대구예술대
	인테리어재료공학과		1	진주산업대
	건축학부	실내건축디자인	1	호원대
	건축인테리어학부	실내건축	1	경운대
합계			69	

단, 총67개 대학에서 상명대와 충북대는 2개학과로 69학과로 됨.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실내 디자인관련 전공의 소속은 대학별로 디자인계/조형·예술계/미술계가 32개교로 가장 많았고, 생활/자연과학계가 20개교, 건축/공과계가 9개교, 그리고 기타가 8개교 순으로 분석 되었다.

실내 디자인관련 전공의 소속은 학부·학과·전공별로는 디자인학부/공간디자인/실내디자인이 21개로 가장 많고, 실내(가구·건축)디자인/인테리어디자인이 20개로 유사하며, 건축·인테리어/실내건축이 14개이고, 주거환경/생활과학/기타 역시 14개로 동일함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내디자인 교육과정의 보다 체계적인 전문화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대학의 명확한 명칭과 소속에 대한 것도 역시 추후 연구·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2) 실내디자인교육의 문제점

실내 디자인교육의 현황을 파악 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학교별로 편차 큰 이수학점,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현저히 낮은 전공필수학점,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신입생 선발방식의 부재, 창의성개발을 위한 교육내용 생성의 부재, 전공의 소속계열 정립 및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교육지원시설 필요성 등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 대학들의 실내디자인교육이 차별화된 전문학문으로서의 성장은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연결될 것을 바란다.

3. 한국 대학의 실내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제안

3.1. 설문을 통한 현황분석과 방향모색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실내디자인 관련 교육적 개선의 문제와 제안을 위해 2010년 4월1일부터 4월 30까지 전문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실내디자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와 강사, 그리고 실무종사자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큰 항목으로 (1)실내디자인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 (2)체계와 전형의 문제, (3)실습문제, (4)자격과 인증의 문제 등으로 각 항목별 선택 항목들이 추가로 주어졌다.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수(이하 교육계) 38명과 실무건축가(이하 실무계) 32명에게 응답을 얻어 분석·종합되었고,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분석된 현황내용과 외국의 사례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내디자인을 개발 할 수 있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1) 대학에서의 실내디자인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

- 설문분석내용: 선택하는 9개 항목 중 교육계는 <양적 팽창과 공급과잉>을 68.4%가 지적하였고, <교수부족과 학생수 과다>와 <교육공간 부족>을 52.6%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계는 <실내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교과내용의 문제>를 53.1% 동일하게

지적하고, <대학교육 제도의 문제>를 37.5%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계와 실무계를 종합한 분석으로도 <양적팽창과 공급과잉>이 51.4%로 가장 많았고, <교과내용의 문제>가 45.7%로 그 다음 순으로 지적 되었다.

-설문을 통한 제안: 학생 과다 모집으로 인한 공급과 수요가 조절될 필요성이 생기며, 교과내용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기와 이론의 일반적인 실내디자인 관련내용은 기본이고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창조적 사고력과 리더십 등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계와 실무계의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대학체계와 입학전형의 문제

① 이상적인 소속계열

- 설문분석내용: 선택사항 4개항 중 <디자인·미술대학> 계열이 51.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건축대학>소속이 38.6%로 다음 순위이다. 이는 2장의 현황분석과 외국의 사례와 다소 다른 결과이나 응답자의 출신대학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보아진다.

- 2장의 현황분석과 외국사례:

• 한국의 경우: <표 6> 2010학년도 모집기준 분석에 의하면 디자인계/조형·예술계/미술계가 32개교 46.4%로 가장 많고, 생활/자연계가 20개교 29%, 건축/공학계가 9개교 13%, 그리고 기타가 8개교 11.6% 순으로 분석되었다.

• 미국의 경우: 신경주 논문(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003:06, p.5)에 의하면 디자인계열이 50.4%, 생활과학계열 30.5%, 건축계열 19.1%로 소속계열 순위가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안: 비록 근소한 차이로 디자인·미술대학에 소속하거나 디자인·조형계열에 소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2장에서 분석된 한국 대학들의 현황과 3장의 설문분석과 외국사례를 종합 할 때 실내디자인이 명백히 어느 대학소속 또는 계열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예술과 과학의 접점으로서의 실내디자인영역을 특성화 시키고, 통섭적 학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찾을 수 있었다.

② 이상적인 학과(또는 학부) 명칭

- 설문분석내용: 실내디자인 전공의 가장 이상적인 소속학과 명칭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3개 항목 중 <공간디자인학과/학부>소속이 51.4%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실내건축학과/학부>가 25.7%, 그리고 <실내디자인학과/학부>가 22.9% 순이었다.

- 2장 분석내용과 외국사례:

• 한국의 경우: <표 6> 2010학년도 모집기준 분석에 의하면 디자인/공간디자인/실내(환경)디자인 관련 소속이 21개 30.4%로 가장 많았고, 실내(건축)디자인/인테리어디자인이 20개 29%로 유사하며, 건축·인테리어/실내건축과 주거환경/생활과학/기타가 각각 14개 20.3%로 분석되었다.

• 일본의 경우: 박혜숙 외 논문(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5호, 2002:12, p.12)에 의하면 예술대학계통 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술대학에 속한 건축과에서도 환경디자인의 일부분으로 실내디자인교육이 이루어지고, 여자대학에서도 가정학영역에 관계되는 미술이나 조형에 주안을 둔 생활조형학과·생활미술학과·생활환경학과 등에서도 실내디자인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안: 단순히 실내·외의 물리적인 표현을 넘고 기존의 실내디자인보다 명확한 정체성과 전문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물론 사회가 변화하면서 다양해진 공간영역들을 폭 넓게 다루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편승할 수 있도록 전공명칭을 광역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관련 학과들의 개별적 상황 및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고 전문적인 미래 영역으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서 앞으로의 주요 연구과제라 생각된다.

③ 신입생 모집형식

- 설문분석내용: 3개항 중 <학과별 모집>이 44개 62.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특히 교육계는 <학과별 모집>이 71.1%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 제안: 국가시책이나 대학 정책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앞서기 위해서는 계열별 모집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보다 집중력 있게 예술적 능력과 이론적 배경, 디자인 관련 기술 습득 등을 위해서는 학과별 모집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과별 모집의 경우는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열별 모집의 경우는 1학년에서 계열교양으로 기초디자인교육이 이루어진 후 2학년에 세부전공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④ 입학전형 과목

- 설문분석내용: 5개항 중 <대학별 자율로 과목을 추가>가 34개 48.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교육계는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활용>이 15개 39.5%로 새로운 입학전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제안: 대학 자율로 과목을 추가하되 그 과목의 대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시책에 따른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활용>도 입학전형 조건이길 바란다. 단순히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대학별, 전공별 입학전형 방법이 다양화 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3) 실내디자인교육의 실습과정 문제

① 실습과정의 필수화

- 설문분석내용: 4개항 중 <필요하다>가 60개 85.7%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실무계 응답자 전원은

실습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 제안: 미국 내 대학들의 인턴십과 같은 실습과정을 벤치마킹하여 필수화하되 실습과정의 현실화를 위해 실습 가능한 회사선정 및 학교와의 계약체결이 우선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학점에 반영하고, 실습기관의 책임자 및 담당교수의 확인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② 실습시행 시기

- 설문분석내용: 실습과정이 필수적일 경우 그 시행시기는 4개항 중 <방학 중>이 30개 42.9%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재학 중 1개 학기>도 24개 34.3% 그리고 <재학 중 1년간>이 12개 17.2% 순 이다.

- 제안: 실습과정이 적합한 해당학년은 어느 정도 실무 프로세스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학년이 바람직하며, 4년제의 경우 3, 4학년 이라 할 수 있고,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 중이 이상적이나, 3·4학년 중 한 학기 시행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4) 자격제도와 실내디자인교육 인증원 문제

① 자격시험 제도의 필요성

- 설문분석내용: 3개항 중 <필요하다>가 42개 60%로 가장 많고, <불필요하다>가 24개 34.3%이고, 기타의견이 4개 5.7% 순이다.

- 미국의 경우: 실내디자이너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 NCIDQ (National Council for Interior Design Qualification)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5)]

- 제안: 자격시험제도는 필요하나, 시행에 필요한 정책, 시험과목과 범위 설정 등 세부연구가 수행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인증원 설립의 필요성 문제

- 설문분석내용: 3개항 중 <필요하다>는 의견이 47개 67.1%로 가장 많고, <불필요하다>가 18개 25.7%이고, 기타의견이 6개 8.6% 순이다.

- 제안: 인증원 설립이 필요하되, 설립을 위한 준비기간과 관련 학회 및 협회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공동협의기구가 필요 하겠다.

3.2. 교육공간(시설) 제안

4년제 대학 실내디자인 교육공간(시설)을 위한 소요시설과 규모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면적의 수치는 일반적인 학교공간면적에 의한 것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 7> 4년제 대학 실내디자인 교육공간(시설)을 위한 소요시설과 규모 (제안)

영역	실명	단위	단위 면적(㎡)	합계면적 (㎡)	비고
관리 부문	학장실+부속실	1	60	60	
	학과사무실+강사실	1	60	60	
	회의실	1	30	30	
	창고	1	90	90	
	소계			240	
교수 연구실	교수연구실+보조원	10	30	300	
	라운지+준비실	1	30	30	
	소계			330	
디자인 스튜디오	1학년	100	4.0	400	가급적 대공간 (Universal Space)으로 오픈하여 전 학년이 함께 디자인하는 스튜디오 형식
	2학년	90	4.0	360	
	3학년	80	4.0	320	
	4학년	70	4.0	280	
	소계			1,360	
컴퓨터실	CAAD실	3	90	270	
	자료+준비실	1	90	90	
	소계			360	
다목적실	전시실	1	480	480	중앙에 위치한 공공공간으로 꾸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과제평가	1	120	120	
	소계			600	
강의실	대	1	120	120	빔, 스크린 설치
	중	2	90	180	
	소	3	60	180	
	소계			480	
세미나실	세미나실	4	60	240	
	준비실	1	30	30	
	소계			270	
전용 자료실	참고도서실	1	120	120	전공도서위주
	자료실	1	120	120	각종자료와 재료
	사무실	1	30	30	Sample 비치
	소계			270	
워크샵	모형제작실	1	240	240	조형실기를 포함 모형제작기구·기기 전문 관리인 상주
	소묘실	1	120	120	
	준비실+창고	1	60	60	
	소계			420	
대학원	대학원실	1	240	240	
	세미나실	2	60	120	
	디자인스튜디오	1	240	240	
	준비실+창고	1	30	30	
	소계			630	
기타시설	부설연구소	1	120	120	
	매점+라운지	1	60	60	
	문방구	1	60	60	
	소계			240	
순면적합계				5,100	
공용부분 총합계				1,530	순면적의 30%
소요면적 총합계				6,630	

교육기준인 학생 1인당 19㎡에 의하면 340명이 필요한 면적 6,460㎡에 근접한 면적이다.

5) 박혜숙 외, 실내디자인 교육의 특성화 방안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5호, 2002, pp.14~15

4. 결론

한국 대학 실내디자인 관련 교육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게 된 종합적인 결론과 보다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실내디자인 전공영역의 개선 방향 제시는 다음과 같다.

▪ <실내디자인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다모집으로 인한 공급과 수요>문제를 조절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겠으며, 교육계와 실무계의 견해차를 줄이기 위한 주기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 <실내디자인의 소속 계열>은 가급적 디자인계열이나 조형계열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미학적 바탕이 반드시 필요한 전공영역의 특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의미이다.

▪ <이상적인 학과나 학부 명칭>도 인간의 삶을 담는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을 다루는 의미의 명칭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통섭적 사고, 시대적 요구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위한 제안이다.

▪ <신입생 운영형식>은 창의성 있는 인재를 다양한 방향에서 영입하기 위하여 <학과별 모집>이나 <계열별 모집>이 가능하나, 보다 전문적인 전공교육을 위하여는 <학과별 모집>이 바람직하다, 미주지역과 유럽선진국의 기초수업 또는 foundation course등의 경우를 참고하여 1학년에 종합적인 기초 디자인과 미학이론 과정을 충분히 습득하고 2학년 이후 전공과정 이수를 제안 한다. 학과별 모집 경우 1-2년 이내에 전과가 가능한 조건을 주어 학생들이 보다 현실감 있게 전공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입학전형>은 대학자율로 과목을 추가하되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등 미래인재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입시방안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실습과정>을 필수화하되 학점으로 반영하고, 철저한 사전관리와 준비과정, 그리고 실습기관의 책임자 및 담당교수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물론 현장 확인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 학생이 실습기관에서 어떤 목표로 실무를 경험하고 목적을 이루었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 <자격시험제도>의 시행은 바람직 하지만, 시행에 필요한 제반 연구가 필요하며, 교과목 설정, 법제적 문제 해결이나 <인증원 설립> 등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은 후 설립 되어야 한다.

▪ <소요 교육공간(시설)의 규모>는 학생 1인당 19-20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창의적 특성과 다양한 교과과정을 고려하여 면적과 형태 변형 요구에 융통성 있는 교육공간과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지원시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문헌조사와 전문가설문을 근거로 분석된 내용으로서 각 대학의 상황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겠으나, 본 연구는 지난 30년 가까이 발전해온 한국의 실내디자인 관련 교육을 재조명하고, 급변하는 디자인 패러다임에 동승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향후 현실에 적합한 교과과정 및 스튜디오교육의 모델제시, 교육공간 및 교육환경,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기구 등의 이슈들은 앞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임영숙, 21세기 한국 실내디자인 교육의 문제점 및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0호, 2002
2. 박혜숙 외, 실내디자인 교육의 특성과 방안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5호, 2002
3. 신경주, 한국 실내디자인 분야의 교육현황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003
4. 한영호 외, 실내디자인교육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6호, 2003
5. 서상우, 건축대학 설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국민대 조형논총 20집, 2001
6. 2010 대학입시 수험자료집, 종로학원
7. 2010학년도 전문대학 학생모집 안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논문접수 : 2010. 10. 31]
[1차 심사 : 2010. 11. 20]
[게재확정 : 2010. 12. 10]